

4대 정당 전북도당 지지 호소

# “소중한 한표 우리에게 꼭 주십시오”

## 새누리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새누리당 전라북도선거대책위원장 김형섭입니다.  
 전북의 미래를 위한 가지밭길 여정이 이제 한 걸음 남았습니다.  
 결전의 날이 눈 앞에 왔습니다.  
 이번 4.13 총선은 오직 전북과 도민을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전북의 현실에 눈 감고, 정권 심판과 교체 타령만 하는 야당에게 더 이상 전북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도민 우롱하며, 그동안의 선거를 하겠다는 야당에게, 때때로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곁에 있는 가족과 친지, 동

료와 이웃에게, “나는 전북발전을 위해 새누리당을 지지합니다.”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전북만 이대로 답보할 수는 없습니다. 전북의 변화가 가장 절박합니다. 전북도민이 전북의 미래를 위해, 전북발전을 위해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새누리당은 잘 할 자신 있습니다. 또 잘 해 내겠습니다.  
 지역감정을 넘어, 상생하는 전북,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특별취재반

## 더민주 “정권 교체 이룰 수 있는 정당에 힘을”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먼저, 도민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도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부족했고 자만했던 우리당이 도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점, 백번, 천번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더 이상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10명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더 낮은 자세로 진심을 다하여 다시 뛰고자 합니다  
 /특별취재반

이번 총선의 분명한 민심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심판입니다.  
 야권분열 세력인 국민의 당은 양당체제를 비판하며 여당에 200석을 주더라도 제3당 재당이 각축하는 다당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의 폭주를 막을 길은 요원합니다.  
 지금은 분열이 아닌 통합, 통합이 안된다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당에 힘을 모아주세요 합니다.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으로 표를 모아 주십시오  
 /특별취재반

## 국민의당 “상식이 통하는 정치 만들어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김관영입니다. 도전은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고 그러한 변화는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저희 국민의 당은 이러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국민의 당에 힘을 모아주시면 계파주의와 패배주의를 극복해 내고 민주개혁세력의 화합을 통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이제 과거를 버리고 과감하게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존에 익숙한 것을 버리고 나갈 때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는 새로운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의 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새로운 정치, 상식이 통하는 정치, 품격이 있는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전북을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세우는 새 역사를 창조해 내겠습니다.  
 내일 한반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시고 기호 2번 후보와 국민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특별취재반

## 정의당 “진보대표정당으로 키워 주십시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정의당을 진보대표정당으로 키워 주십시오.  
 정의당은 20대 총선을 정책선거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전북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비전을 찾기 위해 많은 정책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은 일관되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경제, 복지, 노동, 국방, 청년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 공약을 발표 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대 공약평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도민 여러분, 정의당 후보에게 주시는 한 표, 한 표는 결코 사표가 아닙니다.  
 /특별취재반

그것은 두 야당에 대한 회초리이며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정의당의 표가 늘수록 두 야당은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당이 작아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좋은 후보에게 보내는 합포는 응원의 한 표가 되고 더 큰 정치인이 되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도민 여러분들의 한 표를 그 어느 정당보다도 고맙게 받을 것이며 정의당에 주시는 여러분의 한 표는 그 어느 표보다 귀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에 뜨거운 격려의 한 표, 한 표를 보내주세요.  
 /특별취재반

## 김종인 “국민의당 여당에 흡수될 운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2일 국민의당을 겨냥, “태어났다가 슬그머니 여당에 흡수되는 것이 재당의 운명”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진영(서울 용산) 후보의 지원유세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정당이 태동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재당은 성공하지 못한다”며 “내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또 하나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한 이러한 정당에 대해 전혀 관심 갖지 말고 내일 투표할 때 우리 더민주, 기호2번 진영 후보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특수 계층과 같은 사람들을 잘 되게 하면 나라가 잘 될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새누리당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 4.13 선거 RUN·RUN·RUN

### 최형재 후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후보(전주)는 “전주시민의 삶을 바꾸고 미래에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최형재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후보는 13일 “지난 3년간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의 삶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유지와 권력부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아왔다”면서 “최형재를 선택하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차별한 선거를 함께 진행해온 정운천 후보와 장세환 후보에게 경의를 표한다. 서거기간 본인의 아끼게 만들어진 대립과 갈등으로 뜻하지 않게 상처를 드린게 있다. 넓은 양해와 이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특별취재반



### 정동영 후보, “문재인 전북에 발을 들여 놓지 마라”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전주)는 13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전북방문에 대해서 “문 전 대표는 아예 전북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전북사람들은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문 전 대표는 지난 8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었다더니 오늘은 순천에서 ‘사죄의 절’을 올렸다”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나 문 전 대표의 언행에서는 전혀 사과의 징정성을 찾아볼 수 없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5시 전북대 구정문과 오후 8시 순천주공 1차 후문 등 지원유세에 나섰다.  
 /특별취재반



### 박희승 후보, 한국예총과 간담회 가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 후보(남원)는 지난 12일 남원읍에서 “문 전 대표의 언행에서는 전혀 사과의 징정성을 찾아볼 수 없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5시 전북대 구정문과 오후 8시 순천주공 1차 후문 등 지원유세에 나섰다.  
 /특별취재반



## 전북지역 유세 논란 일으킨 새누리당 김무성 공식 사과

최근 전북지역 유세 현장에서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도민들을 향해 ‘배알도 없는’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새누리당 김무성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공식 사과했다

새누리당 전라북도선거대책위원회는 12일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김무성 위원장의 사과문을 대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사과문을 보면 “지난 6일 유세 시 전북을 꼭 발전시켜야겠다는 열정과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다소 거친 말을 했던 것을 인정한다”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도민 여러분에게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이번 선거는 전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로 전북도민은 야당의 원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전북이 야당 후보가 장악한 야당복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민 여러분들 앞에 약속 하나 하겠다”면서 “새누리당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새누리당 후보를 뽑아주시는데 대한 보은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 세 정당의 운명결린 호남 민심의 향방 촉각

## 새누리 “전북 미래 위해 야당의원들에게 회초리 들어야 한다”

### 더민주·국민의당, 문 대표 호남방문 효과 분석 엇갈려

여야 세 정당의 운명이 걸린 호남의 최종 선택에 정치권 인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북지역 유세 현장에서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도민들을 향해 ‘배알도 없는’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새누리당 김무성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공식 사과했다.

새누리당 전라북도선거대책위원회는 12일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김무성 위원장의 사과문을 대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사과문을 보면 “지난 6일 유세 시 전북을 꼭 발전시켜야겠다는 열정과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다소 거친 말을 했던 것을 인정한다”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도민 여러분에게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이번 선거는 전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로 전북도민은 야당의 원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전북이 야당 후보가 장악한 야당복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민 여러분들 앞에 약속 하나 하겠다”면서 “새누리당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새누리당 후보를 뽑아주시는데 대한 보은을 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표의 11~12일 호남 방문을 서로 엇갈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호남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표가 떨어진다”는 당의 우려로 호남 방문을 자제해온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8~9일에 이어 11~12일 다시 광주와 전남·전북을 찾아 ‘큰 절’을 하는 등 낮은 자세로 민심에 응수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호남이 지지할 거두면 정계은퇴와 대선불출미를 하겠다”며 배수진을 친데 이어 12일에도 “모든 것을 걸었다”, “사즉생의 각오”라며 정권교체를 다짐했다.  
 대권후보와 당 대표를 지내며 호남이 전폭적 지지를 해줬음에도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 각종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자성이다. 특히 문 전 대표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당부를 언급하며

호남의 민심을 자극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행이 가져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당 모두 표심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는 공식 반응을 내놓고 있지만 내심은 다르다.  
 호남에 반문(反文)정서가 있다고 하지만 현재 대권주자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가 대권불출이라는 배수진을 친 만큼 민심이 움직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 전 대표의 언행에서는 전혀 사과의 징정성을 찾아볼 수 없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5시 전북대 구정문과 오후 8시 순천주공 1차 후문 등 지원유세에 나섰다.  
 /특별취재반

## 조배숙 후보, “익산시민의 소중한 선택 기대한다”

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 후보(익산 을)는 “지난 12일 선거운동을 최종 마무리하고 익산시민의 소중한 선택을 기대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조 후보는 “열혈단신 선거운동을 하면서 외롭고 쓸쓸할 때 제 손을 잡아주시고 힘내라 격려해주신 익산시민 여러분 덕분에 외롭지 않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며 “저의 진정성을 알아봐 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익산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저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며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다섯 분 후보자님께 존경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익산시민 여러분께서 저의 진심을 헤아려 주시고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리라는 격언처럼 겸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최영규 후보, 마무리 유세서 “시민께 감사”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2일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국회의원 후보(이하 최 후보)는 약촌오거리 앞에서 마무리 유세에 올인하며 시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곳은 지난 2월 12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처음 찾아 거리인사를 한 곳으로, 선거운동의 시작과 끝을 같은 곳에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익산 제4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최영규 후보는 지난 8일 사전투표를 마치고 매일 자정까지 거리에서 유권자들을 만나 한표를 호소하며 올인하고 있다.  
 최 후보는 하지만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비전 등을 검증할 수 있는 TV토론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꼽았다.  
 최영규 후보는 조용한 선거운동으로 눈길을 끌었으며, 이날만큼은 유세차량에 탑승해 마지막 유세를 펼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간곡히 호소했다.  
 /특별취재반



## 김윤태 후보, “배신 정치 심판일 투표참여 호소”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후보(군산시)는 12일 나운동과 수송동 등 시가지 일대에서 “4월13일은 군산이 무슨 무책임, 배신의 정치를 끝내고 희망으로 설레이는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을 떼는 날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평범 없는 탈당과 야권 분열은 새누리당 장기집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수도권에서 한 석조차 위태롭고 20석도 어려운 국민의당으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내일 투표에 유권자 모두가 참여해 힘 있는 제1야당 수권능력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값어치 있는 한 표를 행사해 달라”며 “군산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 선대위는 이날 저녁 수송동 롯데마트 사거리를 필두로 중동 사거리, 역전 사거리 등 유권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정까지 마라톤 유세를 하며 마지막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별취재반



## 정현을 익산시장 후보, 농민 비하 발언 사과

TV토론회 과정 중 농민 비하 발언으로 농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전북 익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정현을 후보가 결국 사과했다.  
 12일 정현을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토론회 중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농민들에게 상처를 드렸다면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농가의 어려움을 잘 알기에 그 점을 덮어드리기 위해 노력했고 오랜 시간 검토하고 고민했다”며 “농가에 안정적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농민월급제도’ 등의 공약을 준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약을 빨리 선보이고자 의욕이 앞서 뜻하지 않게 어릴적 일화를 이야기했다는 것이 여기까지 외전이 됐다”며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음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물의를 불러일으킨 점 다시 한 번 사죄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는 지난 8일 토론회에서 “농민들이 계획 없이 한 번에 가을에 돈 받아가지고, 풍찬 옛날에 겨울에 화투치고 날렸잖아요”라고 발언해 익산시농민회가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특별취재반

